

특집
미래의 대학

미래의 대학특성화 방향*

고 장 완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대학교육효과성센터 소장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대학교육에 대한 담론이 한창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국은 2003년 '고등교육의 미래'를 발간하여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개혁을 도모하여 왔으며, 미국 역시 2006년 교육부장관 산하에 '고등교육 미래위원회'를 두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는 고등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각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비전 2020' 또는 '비전 2030'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생존·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 대학'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은 미래사회가 지식기반의 글로벌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지

식기반의 글로벌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European Science Foundation, 2008).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들은 미래의 대학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OECD는 미래 대학의 모습에 대하여 4대 또는 6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고등교육 모습을 전망하였다. OECD의 미래 대학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는 전통형, 기업형, 자유시장형, 평생학습/개방교육형, 네트워크형, 그리고 다양형/소멸형 대학(Vincent-Lancrin, 2004) 등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래 사회의 대학 유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한 세대 후 미래의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미래 대학의 특성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대학특성화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는 단순히 현재와 다른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환경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식의 변화, 즉 미래사회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성화의 개념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특성화 개념은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분야, 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및 학내의 지원을 집중 혹은 재분배함으로써 대학자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대학이 학문분야의 전문화, 대학기능의 차별화, 또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의 명성 또는 평판을 높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실행과정’(최상덕 외, 2008)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쟁력 강화라는 추상적 목표를 중심으로 실질적 특성화 노력인 전문화·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경쟁력 강화는 특성화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이 프로그램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이념과 사명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

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다양화와 전문화는 대학교육의 수평적 범위와 수직적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의 대학이 추구하여야 할 전략적 가치이다. 대학의 교육이념과 사명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특성화가 단순히 타 대학과 비교하여 차별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교육이념과 사명에 따라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대학과 차별화·특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대학의 특성화는 현재와는 다른 전환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특성화는 새롭고 특별한 것, 다른 대학이 하지 않는 차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정부주도로 특정 대학, 특정 학문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특성화의 방향은 대학 구조조정이나 대학 경쟁력강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성화의 결과로서 대학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대학특성화는 실질적 내용으로써 이해되어야 하며, 인위적 구조개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산출결과로 보아야 한다¹⁾(유현

¹⁾ 미국의 경우 별도로 특성화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학특성화를 이루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숙·고장완, 2009). 미래의 대학특성화는 인위적으로 특별한 구분을 짓는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진일보하여 대학자체발전계획에 따른 자연스러운 학문분화 또는 기능분화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한 세대 후의 미래 대학에는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주도의 특성화 정책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향후 30년간은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적합한 대학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과로서 대학의 특성화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미래의 대학특성화 방향

미래 대학의 특성화 방향은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 대학의 특성화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미래 대학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인 고교졸업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반적인 대학교육인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대학교육 인구는 연령적·계층적,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다. 즉 평생학습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학생들만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대학인구로 유입되며, 또한 이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대학의 비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미래의 대학은 학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학위나 자격증과 관련없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될 것이다. 즉 대학은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간 학생이동의 증가로 외국인 학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미래 대학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구성원의 다양화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자체의 기능변화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일부 대학은 지역 사회 문화 및 사회교육의 중심으로써 교육중심, 연구중심 대학과 같은 문화·봉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한 대학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이 설립되는 것이다. OECD는 향후 50년 이내에 그 종류와 역할이 다양한 수많은 소규모-전문화된 대학들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게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설립을 촉진할 것이다. 학사학위와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대학인 미국의 Empire State College와 같은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미래 대학의 특성화는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특성화가 수평적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전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특성화는 학문적 수준의 차별화·고도화를 바탕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현재와는 다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미래에는 대학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대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국가의 전략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국가 경쟁력 또는 경제 경쟁력을 위해 고급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대학은 국가 고급 인재양성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국가·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전략적 학문분야나 영역에서 특성화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미래 대학은 지역사회, 특히 지역기반 산업체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체의 가치를 반영한 전문 분야에서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에는 학문적 융합이 일반화 될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 분야 육성시 융복합적·간학문적 접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사회의 지식 창출은 하나의 학문으로부터 보다는 간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 대학의 특성화는 실질적인 대학 간 기능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는 고등교육의 세계화·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대학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인증강화와 국가간 학생이동의 증가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적 호환 가능성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국제화된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을 목표로 할 필요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간 적절한 역할·기능 분담이 필요하다. 대학간 기능분화는 크게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합된 형태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은 더 연구중심적으로, 교육중심대학은 더 교육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연구중심대학은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대학은 고급인재양성의 핵심기관이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중심대학은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중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래 사회에는 교육중심대학이야말로 미래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학이 기업화되고 산학협동이 증대되면서 대학이 본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ropean

미래전망	특성화 유형	특성화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수요에 따른 학생구성의 다양화 - 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필요 	프로그램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충족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소규모 전문화, 특화된 대학운영 - 지역사회 문화 및 사회교육 센터로서의 문화/봉사중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양성 요구 - 대학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 증대 - 산업체의 요구증대 (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프로그램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창출 / 고급인재 양성 분야 - 핵심 국가 전략분야 육성 - 산학협력 /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융복합 · 간학문적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따른 질 관리 필요 -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 필요 - 대학의 기업화 · 민영화 등으로 대학 고유의 가치 상실 - 인성 및 기초, 교양 교육에 대한 강조 	대학의 기능·역할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간 역할분담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연구중심대학 -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위한 전공 · 교양교육중심대학

[표1 _ 미래 전망과 대학 특성화 방향]

Science Foundation, 2008).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점차적으로 기업화 · 민영화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양과 인문학, 기초과학에 기반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중심대학이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미래 대학특성화를 위한 제언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학의 특성화는 지금부터 향후 30년간 대학과 정부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써 얻어질 것이다. 미

래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대하여 대학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대학은 스스로 대학특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주도의 행·재정적 지원도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에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존재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장기적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대학특성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여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다. 대학특성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래 대학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특성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적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의 자발적 특성화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주도의 특성화는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한 세대 후 미래대학의 특성화는 자발성에 기초한 대학주도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하여 대학이 능동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고등교육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은 자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되 절차적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은 자율적 대학운영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는 자율성과 책무성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소개

고장완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대학교육효과성센터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과 미주리주립대학교 연구원, 조지메이슨 대학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육효과성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

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대학생의 학습경험 분석연구, 미국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분석, 미국 고등교육의 포물러펀딩 사례분석, 미국의 대학특성화 정책분석(공동)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평가, 대학교육효과성,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